

[특별기고] 전국 그린리모델링 '소통플랫폼' 중앙대 컨소시엄

인구·인프라 밀집 수도권, 그린리모델링 전국확산 '모델' 저변확대·인식제고 위한 경진대회·언론홍보 주력

칸 기자 kharn@kharn.kr

등록 2021-05-09



▲ 박진철 중앙대 교수.

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특히 수도권은 사업지원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구성이 용이하며 우수 대학이 밀집해 사업홍보 및 교육활용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중앙대 컨소시엄은 수도권에서 국내 전 지역으로 뻗어있는 인적, 산업적, 교육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소통플랫폼 거점센터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전문인력에 의한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정확한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에너지성능 및 안전, 거주환경 등 건물 성능향상을 확인하는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린리모델링 적용효과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미나, 교육 등 정보공유를 통해 전문가 양성과 일자리 및 신사업창출을 도모한다.

그린리모델링 서울경기지역 거점플랫폼인 중앙대 컨소시엄은 산·학·연 연계로 그린리모델링의 학문적, 실무적 발전이 가능토록 구성돼 추진 중이다. △중앙대 △서울대 △연세대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친환경계획그룹 청연 등 6개 대학·기관·기업이 수도권 지역특성을 고려한 그린리모델링사업 활성화 및 구축을 목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수도권, 전국네트워크 '중심'

수도권은 인구 및 인프라가 밀집된 국내 최고의 대도시로 그린리모델링사업 수행사례 및 성과가 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델역할을 할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사업 성패에 중요

사업주, 공공기관, 설계, 시공, 컨설팅 등 사업관계자에게는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제공을 통해 분야별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확산을 독려할 계획이다.

전 국민 참여 경진대회 개최

중앙대 컨소시엄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플랫폼사업의 소통창구로서 전국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홍보하기 위한 경진대회 개최도 맡았다. 경진대회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향상 및 홍보를 위해 전 연령대가 참여가능토록 기획됐다.

참여신청은 5월 중 그린리모델링 경진대회홈페이지(greenremodeling.re.kr)를 통해 접수하며 최종 작품제출은 오는 8월16일까지 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10월15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각 부문별 수상작을 1개월간 전시해 그린리모델링 플랫폼사업의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경진대회뿐만 아니라 6개 거점센터의 전체 홍보를 맡아 그린리모델링 플랫폼사업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언론을 비롯한 대국민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해야

공공건축물을 마중물로 민간건축물까지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폭넓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제도적 개선 역시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린리모델링사업 지원을 위한 자원마련 및 인센티브 확대 등 경제성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하며 민·관협력을 강화해 사업수행을 원활케 해야 한다. 또한 보급우수지역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참여·추진 의사결정을 독려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녹색건축기술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실질적 그린리모델링을 달성하고 성능·기술·품질을 향상함으로써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 및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박진철 중앙대 교수>